

1995년도 에너지경영인 신년인사회 국내 에너지관련 인사 200여명 참석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1월 13일 한전 본사 후생동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그리고 국내 에너지 관련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을 모시고 1995년도 에너지經營인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한편 李宗勳 회장(한전 사장), 趙圭鄉 부회장(유공 사장), 張基玉 부회장(한국전력기술 사장), 金永文 부회장(한전 부사장) 등 한국에너지협회 회장단은 신년 인사회장 입구에서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영접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이 주빈으로 초청되어 국내 에너지관련 인사들과의 신년 인사회를 통해 에너지계의 협력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한편 李宗勳 한국에너지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년 새해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대비하여 의식과 관행을 세계화하고 經濟體質의 구조적 안정을 기하는데 많은 힘을 쏟아야 할 한 해”라고 말하고 “에너지산업계도 世界化를 위한 국가적 목표에 적극 부응하고, 世界市場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의 여건변화를 슬기

롭게 극복하고 에너지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에너지계는 신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제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朴在潤 통상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원동력인 에너지·자원분야를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신년인사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에너지·자원 산업발전을 위해 전력해 온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자원산업은 어느분야 보다도 세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에너지사용량의 96%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경제의 존립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자원개발과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효율적인 소비절약 시책의 추진과 기술개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였다.

스탠딩 부폐식으로 리셉션에 들어간 신년인사회는 朴在潤 장관과 李宗勳 회장 그리고 張基玉 한전 기술 사장, 徐錫天 한전기공 사장, 洪世基 전기안전공사 이사장, 韓甲洙 가스공사 사장, 趙圭鄉 유공 사장, 許東秀 호남정유 사장, 李氣盛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朴源培 한화에너지 사장, 鄭秀雄 지역난방공사 사장, 朴鍾律 유공가스 사장, 李壽崗 한국중공업 사장, 權五倫 호유에너지 사장, 張錫靖 석유개발공사 사장, 李會晟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孫永睦 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鄭夏五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崔在英 동아엔지니어링 사장, 李昌燮 한국원전연료 사장, 柳鍾烈 효성중공업 사장, 金振模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등 최고 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상호 의견교환과 새해인사를 나누면서 에너지계의 발전을 다짐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맞이한 에너지계 신년인사회를 매우 만족해하면서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새해 설계와 세계화를 향한 협력증진에 공동 노력하자고 다짐하며 에너지계의 앞날을 축복하였다.

1995년도 정기총회 개최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理事 選任과 定款 일부 개정

한국에너지협회의 1995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0일 회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본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9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임기만료된 이사 15명에 대한 재선임과 정관 일부를 개정하였다.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은 3개 기본사업에 10개 세부사업으로 수립 편성하였으며, 첫째, 회원협력사업으로는 에너지계 경영인 신년인사회, 에너지 경영인 간담회, 회원사 산업현장 시찰, WEC東京總會 귀국보고 강연회 개최 등이 주요 사업이다.

둘째, 국제협력사업은 WEC 동경총회 참가, WEC 기술분과

위원회 참가, 96년도 WEC 집행 이사회 참가준비에 역점을 두고, 셋째, 에너지 기술 정보자료 발간 사업은 에너지協議會報 발간, Energy in Korea 1995발간, 기타 에너지관련 자료수집 발간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 예산은 건축예산 편성으로 작년도 수준인 2억 7천 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또한 관리 가능한 일반경비는 최대한 절감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회원의 이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과 공동이익에 부응하고 협회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하였다.

理事 선임에 있어서는 비상임이사 20명중 15명이 95년 2월 임

기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18조에 의거, 한국전력공사 이종훈 사장, 대한석탄공사 이상윤 사장, 한국전력기술 장기욱 사장, (주)유공 조규향 사장, 한국전력공사 최대용 부사장, 현대중공업 김정국 사장, 한국에너지기술(연) 손영목 소장, 한국과학기술원 심상철 원장, 에너지관리공단 이기성 이사장, 한국중공업(주) 이수강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이태형 사장, 과학기술처 정근모 장관, 대한광업진흥공사 조종익 사장, 한국가스공사 한갑수 사장, 호남정유(주) 허동수 사장 등 15명의 이사가 새로이 선임되었다.

새로이 선임된 이사는 앞으로 3년동안 협의회 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제 25 차 이사회 개최

會長, 副會長 및 常任理事 選任

한국에너지협의회 제25차 이사회가 지난 2월 20일 협의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본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사무국장)의 임기 만료

에 따라 회장단 및 상임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였는데, 회장에는李宗勳 한전 사장이 재선임되었으며, 부회장은李相倫 대한석탄공사 사장, 張基玉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趙圭郷 (주)유공 사장

이 재선임되고, 崔大鎔 한전 부사장이 새로이 선임되었다.

한편 金榮哲 상임이사(사무국장)은 95년 2월 임기만료되어 그 후임에 張基憲 상임이사(사무국장)이 새로이 선임되었다.